

#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8)]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 (막 8:34).

### 자기 부인 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했는데(막 8:33-34)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바깥 뜰에서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 26:47-75).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봅니다.

###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막 8:34)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33 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35 절).

##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지혜 얻기를 게을리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잠 19:8).

##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의 열심은 위험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롬 10:2-3).

##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눅 18:9, 14).

##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삿 8:1) 나에게 와서 분노하는 사람(3 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선  
내가 그 사람을 나와 비교도 되지 않게  
높여주고 인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2, 3 절)

##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24).  
과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23 절)  
여기서 "사람의 일"은 적어도 사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21 절)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22 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었습니다(21 절).

우리가 많은 때에 육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 자기를 살피어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어 아는 명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잠 28:11).

## 자기만 아는 마음의 고통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잠 14:13).  
보기에는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근심으로 인하여 번뇌하고 있습니다(13 절, 12:25).  
마음에 자기만 알고 있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14:10).

## 자녀 농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녀로 인하여 부모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 자녀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곱게 양육하고자 좋은 말로만 하고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 꾸짖어야 합니다  
(잠 29:15, 17, 19, 21).

## 자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주는 부모?

사울 왕은 자기 군복을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므로 그 군복을 벗었습니다(삼상 17:38-39).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주었습니다(18:4).  
그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1 절).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충분히 그 자식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군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요  
또한 그만큼 자식의 입장에서 사랑하기 보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들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대하 1:8).

그 "큰 은혜"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삼하 7:8).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들 솔로몬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동침하고 임신케 하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녀의 전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여서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완전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달아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앞에서도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 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서 끝나지 말고

그러한 이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 자식을 금하지 않는 부모?

부모가 주님 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기면(삼상 2:29, 30)

그 자식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17 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주를 자청하는 그 자식을 금하지 않습니다(3:13).

## 자신을 팔은 아합

“더 아름다운 포도원”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리도 원했는지(왕상 21:1-2), 그는 돈으로 값을 내서 다른 포도원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리도 원했는지(2 절), 그 이유가 다만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기 때문이라니(1-2 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분명히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에(3 절)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4 절, 참고: 6 절) 이스라엘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습니다(4 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5 절)라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물었을 때 아합 왕은 그녀에게 다 보고(?) 합니다(6 절). 그 때 오죽 했으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7 절) [(현대인의 성경)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이끌기 보다 그녀에게 이끌려서 선악과를 같이 먹은 것처럼(창 3:6), 또한 마치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간 것처럼(16:1-2),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이끌기보다 그녀에게 끌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욕심인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됩니다 (왕상 21:15).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15 절)라는 말을 듣고(16 절)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 아합(16 절),  
참으로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람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20, 25 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20 절).  
그와 같이 그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습니다(25 절).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26 절).

그런데 이러한 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29 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 자신의 몸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  
즐고 있다면,  
그 결과 시험에 든다면 ...  
(참고: 마 26:41, 막 14:38).



## 자신의 죄가 많음을 깨달아 가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죄가 많음을 깨달아 가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 복이란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 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고 넓은지를 알게 되므로

더욱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롬 5:20; 눅 7:47).

##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줄을 압니다.

또한 그/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압니다

(딤후 6:6-8).

##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할 때(고후 5:7)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을 작게 만드십니다(겔 29:15-16).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잘못된 나쁜 소문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저 추측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러 하므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나쁜 소문이 나돈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 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잠 26:22, 현대인의 성경).

## 잘못된 사람 or 행복한 사람?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로 걸으면  
잘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 1:1).

(Mark Futato 교수님의 "The Book of Psalms" 주석을 읽으면서)

## 잘못된 축복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을(엡 1:3)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모든 물질적인 축복 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 악한 눈을 가진 자 vs. 선한 눈을 가진 자

"악한 눈"은 '

탐심을 품은 자의 눈"을 가리킵니다(잠 28:22, 박윤선).

탐심을 품은 자의 눈은

결코 가난한 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못 본체 합니다(27 절).

그는 가난한 자의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27 절, MacArthur).

오히려 그는 자기보다 부한 자를 바라보고

그의 재물을 탐합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22:9)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28:2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입니다(14:31, 현대인의 성경).

##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잠을 폭자는 것이

돈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먹을 것과 돈이 많고 적음 보다 잠을 달게 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전 5:12).

##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주님의 원수들이 교만하게 떠들며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서로 동맹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하며 간계를 꾀할 때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시 83:1-5).

##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트리고 떨어트리며 흔들려고 꾀하고 공격하는  
사단과 그의 세상 무리들 (시 62:3-4),  
그 무리들은 입으로는 우리를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4 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8 절).  
결코 우리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10 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8 절).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 절).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1, 5 절).

## 장성한 자가 되어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단계를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히 5:12-14).

## 재물을 잃는게 더 낫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재물을 잃는게 더 낫습니다(전 5:13, 14).

## 재물의 한계

재물이 많은 여러분,

재물의 한계가 옵니다(렘 51:13).

## 재물이 없어지게 하셔서라도 ...

하나님께서서는 재물을 없어지게 하시므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의 결실을 못하는데서(막 4:19) 건져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눅 16:9).

## 재앙을 만나 두려울 때

우리가 재앙을 만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리석음과

기뻐하는 거만함과 지식을 미워하는데서 돌이키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잠 1:22-26).

## 저주를 돌이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레위는 저주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 (창 49:5-7).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욕을 당했을 때(34:2)

하몰과 세겜을 속여(13 절) 할례를 행하게하므로(24 절) 그들이 아파할 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기습하여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및 그들의 성읍에 모든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25-26 절).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저주 받은 레위의 후손들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출 32:29).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도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 명 가량을 칼로 죽이고 나서 말입니다(8, 26-28 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은 행복자들입니다(신 33:29).

(Tremper Longman III 의 "IMMANUEL IN OUR PLACE"를 읽으면서)

## 성적 만족감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여  
함께 성적 만족감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고전 7:2-5).

## "전에 하던 대로"

내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단 6:10).

## 절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헌신 및 결심합니다(시 71:14).

## 절제 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고전 7:1).  
부부의 의무는 서로의 성적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3 절).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5 절).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절제 못하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성적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5 절).  
그러므로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9 절).

## 점 밖에 되지 않는 인생일진데 ...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아무리 100 년을 산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점 밖에 되지 않을진대  
그리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리도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좀 먹는 헛된 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  
(시 39:11)

## 정의 보다 뇌물을 좋아하는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보다  
시민들에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잠 29:4)



## 정조를 잃은 교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고 있지 않고 사생아를 낳고 있습니다(호 5:7)..

지금 신부된 교회는 신랑되신 주님께 정조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사생아" 같은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빌 1:8)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a spirit of prostitution)이 있습니다(호 5:4).

그 결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로 우리 주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4 절).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 있습니다(5 절).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6 절)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그것들을 받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수한 제물"은 아무 유익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말입니다(사 1:11).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인데 말입니다(12 절).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배당만 뵈을 뿐인데 말입니다(12 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헌금인데 말입니다(13 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말입니다(13 절).

그 모든 받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기에 곤비"한 "무거운 짐"인데 말입니다(14 절).

이렇게 받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호 5:6).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1, 2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징벌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15 절).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계십니다(엡 5:26-27).

그러므로 결국 신랑되신 주님께서서는 신부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계 19:9).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호 6:1).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1 절).

## "정죄"라는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라는 돌로

나 자신을 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요 8:3-11).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32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 일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36 절, 현대인의 성경).

## 정직한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집니다(잠 11:3, 6).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민 14:8).

그러나 모세를 거스렸던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16:1-2)은

애굽 땅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13 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싫어하고(14:31)

오히려 이 세상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제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5 가지의 힘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5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성령님의 힘’입니다. 제가 이 5 가지 힘을 구하는 이유는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구하는 이유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가면 갈 수록 저는 그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수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고전 15:10).

또한 제가 주님께 사랑의 힘을 구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제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없음을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많이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물댄 동산이 되어서(렘 31:12)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많이, 넓게, 높게 깨달아 알아갈 때에만이(엡 3:19)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마 22:37-39).

이렇게 저는 주님께 5 가지 힘을 구하곤 하는데 문제는

사탄은 이 5 가지의 힘과 정반대로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제가 주님께 은혜의 힘을 구할 때

제 생각에 은혜 의식 보다 공로 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눅 17:10)

사탄은 제 자신을 우쭐되게 자극하며 또한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 사람들 중에서 으뜸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요삼 1:9).

결국 사탄은 저로 하여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고전 15:10)이 아닌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제 머리에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사탄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신 8:17).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인데도 말입니다(18 절).

또한 사탄은 제가 주님께 사랑의 힘을 구할 때 제 마음에 미움을 싹트게 하여

제 아내조차도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일 3:15)

사탄은 저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제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미워하고 또 미워하게 부단히 제 삶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주님께 말씀의 힘을 구할 때 사탄은 저로 하여금 성경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저의 형제, 자매들 위에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신 17:19-20).

그 뿐만 아니라 사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진리 그 자체보다 그 진리의 말씀에 추가하던지 빼던지 하게 거짓말을 제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저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졸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마 26:41)

사탄의 목적은 저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기에 자꾸만 기도할 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졸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무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의 자세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저로 하여금 서서 제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충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힘을 구할 때 사탄은 최악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부추이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저로 하여금 성령님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갈 5:16-21).

이렇게 사탄은 제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5 가지 힘과 정반대로 제 삶에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부터 저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공격하여 자꾸만 제 생각의 영역에서 의문을 던지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제 마음의 의심을 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저로 하여금 힘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서(히 12:2)

제 시선을 자꾸만 돌려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걷는 저로 하여금 “바람을 보”게 하고 제 마음을 두렵게 하므로(마 14:30) 두려운 상황에 이끌림을 받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어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버리시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 내버려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롬 1:24, 26, 28).

## 제일 힘들 때가 하나님께 부르짖기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원통함과 우환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상할 때에  
제일 힘든 것은 우리를 돕고나 보호하는 자나  
우리를 보살펴 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일 힘들 때가  
하나님께 부르짖기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시 142:1-4).

##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약 1:2-4).

##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겔 14:3)

거짓 선지자들/거짓 목사들

거짓 예언/거짓 점괘/거짓 복음(13:1-9)

유혹(10 절)

거짓말(22 절)

우상(14:3)

죄악의 걸림돌(3 절).

## 조금 말고 갈급!

조급해 하지 말고(잠 29:20, 딤후 3:4) 갈급해 하자(시 42:1).

## 조심해야 할 거짓 목사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짓 목사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입니다(참고: 마 7:15).

## 족한 은혜를 누리는 기회?

"육체의 가시"와 같은(고후 12:7)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족한 은혜를(9 절)

충분히 누릴 수만 있다면야 ...

## 존경심이 들지 않는 지도자의 말을 ...

존경심이 들지 않는 지도자의 말은  
귀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의 말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행 5:34-40).

##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 ... (빌 2:25-30)

## 좀 단속해야 합니다.

본래 나쁜 버릇이 있는 자녀는 경고를 하고 단속해야 합니다(참고: 출 21:29, 36).

## 좀 약해질 필요가?

주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크면 우리는 너무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만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좀 약해질 필요가 있습니다(고후 12:7, 9).

## 좁은 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마 16:24; 막 8:34; 눅 9:23)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마 7:13)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시 84:5).

## 종일 ... 의지

사람들에게 "종일" 시달리며 "종일" 괴롭힘을 당하며  
"종일" 내 말을 곡해당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참고: 시편 56 편).

##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렘 17:5, 6).

## 죄가 많으므로

우리의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애 1:5).



##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롬 6:14).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18, 22 절).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사(선물)인 영생입니다(22, 23 절).

## 죄란?

1. 죄는 불법입니다(요일 3:4).
2.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불신)입니다(요 16:9).
3.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약 4:17).
4. 죄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롬 14:23).

##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되는데 .. 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이 범한 죄를 심상히 여기지만(잠 14:2, 9)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하는 자들은

영적 행음함인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므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렘 3:6-10).

## 죄를 뉘우치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사  
지금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사  
세상에 사로잡힌 교회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사랑을 베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더러움과 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겔 39:23-26).

## 죄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창 4:5-7).

## 죄를 짊어진채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짊어진채 죽지" 않겠하고자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출 28:31-43, 특히 43 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죄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히 3:1, 고후 5:21)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채 죽게하시하고자(벧전 2:24)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창 3:15, 사 53, 시 22).

## 최악된 감사 기도

마치 예수님께 치유 받은 10 명의 나병 환자들 중 1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발 앞에 앞드리어 감사하였던 것처럼(눅 17:16)  
우리 그리스도인들 10 명 중에 1 명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셨는데(살전 5:18),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리 불평과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왜 이리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 사함과 구원과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결핍된 것 같습니다(엡 1:3).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나병환자였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저) 아무개(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눅 18:11)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손으로 쓰는 글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왠지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9 절).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매 주일 예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감사 기도'가 '최악된 감사 기도'는 아닌 것인지 ... ㅠㅠ

## 죄악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으시면 ... (창 44:16)

## 죄악의 징검다리

의의 징검다리가 되어 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겔 7:19).

## 죄에 중독된 사람

죄악된 생각이 머리 속에 드는 것을 절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중독된 사람은  
죄악된 행동의 쓴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창 6:5).

##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은 ...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짓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 있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참고: 시 32:3-4).

## 죄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고 있지 않기에 ...

내가 죄를 범하는데 담대한 이유는 죄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 8:11).

## 주님 보시기에 “악한 종”은 ...

우리 보기엔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종”은 ... (마 24:48-49)

1.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란 주님이 더더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48 절).

만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혹은 아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한 종”입니다.

2.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밖에요.

그 잘못된 행동이란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49 절).

만일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에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37-39 절)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한 종”입니다.

3. 외식하는 자(위선자)입니다(51 절).

그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눅 12:56).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니다(막 7:6).

그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봅니다(마 7:5).

그는 겉은 깨끗히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23:25).

그는 회철한 무덤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27 절).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6:2).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5 절).

그는 헌금과 십일조 등을 철저히 받치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23:23).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24:45).

1. 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합니다(25:4, 8, 9, 13).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입니다(계 22:20).

2. 그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아 “바로 가서” 그것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마 25:16, 17).

3. 그는 진실한 자입니다(계 17:14).

그는 진실한 마음(벧후 3:1)과 진실한 입술(잠 12:19)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눅 12:42).

그는 진실한 일꾼입니다(엡 6:21).

그는 진실한 증인입니다(잠 14:25).

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입니다(시 145:18).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회계”를 할 것입니다(마 18:23, 24, 25:19).

회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한 마디를 하실 것입니다(25:14-30):

“착하고 충성된 종아”(21, 23 절)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26 절).

## 주님 안에서 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고후 12:5, 9-10, 13:4).

## 주님 앞에 큰 자

주님 앞에 큰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눅 1:15-16).

## 주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아버지께 묻고 있습니다(말 1: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엡 3:18,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있습니다(말 1:6). 오히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 볼 때).

지금 우리는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하므로(8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상을 경멸하며 더러운 음식을 내(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지금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17).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13).

우리의 완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입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 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 모든 악을 회개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18 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16 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또한 아끼십니다(17 절).

## 주님, 이러한 교회로 세워주세요.

신랑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되  
현숙한 여인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잠 31:10).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교회(30 절)와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교회(12 절),  
그리고 신실한 교회로(12 절)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하기보다 ...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하기보다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요 6:11).

## 주님께 생명을 맡긴다?

야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창 43:14)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에 4:16)



##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돈을 사랑?

"브올의 아들 발람"(민 22:5),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12-13, 18, 34, 20-21, 38; 23:12, 26; 24:12-13 절)

모압 왕 발락이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하니까(22:17; 24:11)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고 답변을 했다(22:18; 24:13).

모압 왕 발락은 바람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발람은 가득한 은금을 언급했다.

발람은 왜 이리 엉뚱하게 답변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발람은 "불의의 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벧후 2:15).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이다(마 6:24; 딤후 6:9-10).

## 주님께만 앞드려 절하며 섬겨야 ...

다니엘에게 앞드려 절했던 바베론 왕 느부갓네살은(단 2:46) 금신상을 만들어(3:1)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앞드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5 절).

그는 누구든지 앞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6 절).

그 때 다들 금신상에게 앞드려 절했는데(7 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앞드려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12, 18 절).

그 결과 그들은 심히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19-23 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28 절).

그 이유를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자기를(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28 절).

우리가 앞드려 절하며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서로를 만나게 하실 때에 아무 의심 말고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을 사용하시사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행 10:20-48; 11:12-17).

##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마 7:10; 눅 7:9)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 8:8 -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눅 7:7 - "말씀만 하사").

## 주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 (시 119:68).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고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67, 71 절).

과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71 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히 5:8).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바른 판단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시 119:66).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65 절).

##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인 것을 알고 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일(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참고: 행 9:11 및 문맥).

## 주님은 우리의 만남을 결코 허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남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만남이나 허락하시는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롬 12:2).

그 모든 만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삼상 22:3).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

나로 하여금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다윗처럼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빛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하시사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삼상 22:2)

그들의 고통과 연약함 등을 체휼케 하시고자 일 수도(히 4:15),

옴처럼 고통 당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심지어 가족들조차도)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욘 16:2, 개역한글)

또는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들"(현대인의 성경)임을 깨닫게 하시사(2 절)

오직 나의 참된 위로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일 수도(요 14:16),

한나처럼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갑절로 받지만(삼상 1:5)

그로 인해 그의 아내 브닌나에게 몹시 괴로움과 업신과 비웃음과 조롱과 학대를 당하므로

(6-7 절 현대인의 성경) 울며 식사를 하지 않을 때가 보통인데(7 절, 현대인의 성경)

거기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10 절)

엘리 제사장에게 "악한 여자로 여"김을 받기까지 했지만(14-16 절)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슬픔과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계기로 만드신 것처럼

(15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가족의 만남과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괴로움과 오해로 인한 상처까지 받음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고 다 쏟아내게 하시는 것일 수도,

기드온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적군들의 꿈과 꿈 해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처럼(삿 7:9-15)

하나님께서서는 내 원수와 의 만남을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배케하시고자 일 수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나에게 불신자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욘 1:6)

내 죄를 책망하시고 (7-10 절) 회개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자 일 수도(12 절),

인생의 쓴 맛을 본 나오미처럼 심히 괴로움을 겪고 있었지만 (룻 1:20)

며느리 룻과의 만남으로 인해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본 것처럼 (4:13-17)

하나님께서서는 내 사위, 며느리, 자녀와 같은 가족으로 인해

나의 괴로움을 돌이켜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실 수도,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창 37:4)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하다가(20 절)

결국에는 애굽에 이끌려 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서(39:1)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아 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지만(14-20 절)

그 옥에서 바로 왕의 슬 말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40 장)

결국에 가서는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41 장)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것처럼 (45:5)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과의 만남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만남으로 극심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돌보게 하시고자 일 수도(50:21),

등등 ...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 주님을 근심케하는 그리스도인들 ...

주님을 근심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모릅니다(시편 95 편).

##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시 123:1).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는데(출 3:1, 9-10, 12)

건짐을 받아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말했습니다

(14:10-12).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옛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 세상을 섬기면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말한다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할텐데 ...

## 주님을 '안다'는 의미?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수요기도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한 점)

##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와 따르는 자의 차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민 32:11):  
불신 → 불만족 → 불평 → 불순종 → 불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12 절):  
믿음 → 자족 → 감사 → 순종 → 의.

##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렘 17:7).

## 주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

갈리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또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연회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지만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격하였습니다(요 2:1-11).

주님의 종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격할 것입니다.

## 주님의 눈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내 눈이

나를 어떻게 보든,

주위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던,

주님의 눈에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사 43:4).

##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자는

겸손합니다

(왕상 3:7-11).

##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 이루소서

(행 13:22).



##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목사

주님의 종인 목사인 내가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실 때에는  
크게 기뻐하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는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면  
과연 나는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욘 4:1, 6; 요 10:11, 15)

##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목사?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따라 가는 사역자가  
주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들으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는 그들의 근심을 모른다면 ...  
(출 3:7, 9)

##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모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희망을 주며,  
나의 고난 중에 위로며, 나를 살리십니다  
(시 119:49, 50).

## 주님의 인자와 긍휼 따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덮어주며 지워주며 기억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 따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시 51:1).

##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

먼저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사  
우리를 위안해 주십니다(시 119:76).

첫째 아기 주영이를 떠나보낸 날 아침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시편 63 편 3 절로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땀가루를 물에 뿌린 후  
주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인자하심)을 찬양케 하시사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119:76).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제게 임하므로 제가 살았습니다(77 절).

##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괴로움은  
주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 심판적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이 시편 119 편 74-77 절 말씀 중심으로 전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 주님의 종은 ...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왕상 18:36).

##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징계)을 통하여 고통중에서도  
주님의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시 94:12).

우리는 그 주님의 교훈하심을 받아 회개하므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야 합니다(13 절).

또한 우리는 많은 근심 중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붙잡힌바되고  
주님의 위안을 받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해야 합니다(18-19 절).

## 주님의 파수꾼?

파수꾼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겔 33:7).

지금 내 주위에 하나님의 파수꾼의 있는가?

있다면 지금 나는 그 파수꾼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가?

혹시 주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

##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신 10:12, 미 6:8)

우리는 그보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을  
더 찾고 있습니다.

##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

'보수'라고 말하면서 '개혁'을 외치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배("제사")를 강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마 12:7).

## 주목을 받는다는 것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느 한 사람이든 소수의 사람들에게  
죄악된 질투의 눈으로 주목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삼상 18:6-9).

## 죽기 전에 기도 제목?

당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잠 30:7)

**죽습니다.**

욕심을 내면 죽습니다(민 11:34).

##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죽어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시 104:29).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할 것이기에(31 절)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33 절).  
나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할 것입니다(34 절).

##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은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로부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왕상 18:20-26).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알이나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바알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거짓된 신(우상)을 닮은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생각됩니다.

## 죽은 자, 죽는 것, 죽어 있는 것

10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출 12:33).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14: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이 손에 구원하시므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30 절).

## 죽을 각오까지 하고 ...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종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참고: 행 21:13).

##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잠 21:6).

##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히 1:3)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2:10, 현대인의 성경)

"큰 구원"을 이루시되(3 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1:3)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2:10)을 하시고자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되(9, 10 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습니다(14-15 절).

## 죽음의 관점으로 살자.

다시금 죽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전 7:2)

이런 저런 문제들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욘 1:17) "박냉쿨"(4:6)과 "벌레"(7 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8 절)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요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입니다.

나병환자 10 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눅 17:12-13).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 절).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멀리 서서"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12 절)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14 절)

놀라운 것은 그 10 명의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이성(명철)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을텐데 말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14 절).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 10 명 중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했습니다(15-16 절).

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가라 네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 절).

우리는 주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십니다

(엡 3:20, 현대인의 성경).

## 증인의 삶이란 ...

증인의 삶이란(행 1:8)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20:24) 내 일상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에서 및 교회 밖에선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이웃과 함께하는 동안

그/녀에게 선한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 조명래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 지극히 미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 나라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겔 29:14, 15).

그 이유는 2 가지로 요약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이유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극히 미약하게 하셨습니다(29:3, 9; 30:6, 18; 31:10, 14).
2.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므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그 죄악을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29:16).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나 사람을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것이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나 사람을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는 낮아지게 하십니다(30:6).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어 그들이 돌러 있게 하였지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보다 악을 더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요란함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며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계십니다(겔 5:5-8).

## 지금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3 가지 입니다:

1.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사 45:4, 5).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호 4:1, 6).  
지금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버렸기에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에 말대로,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며 또한 분수에 넘치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민 16:3, 7).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우리 목사들이 변성하면 변성할 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고 있습니다(호 4:6-7).
2.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1, 6 절).

지금 교회는“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빌 3:8). 특히 우리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모르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전 15:3-4).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롬 1:3-4).

오히려 지금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갈 1:6-9).

지금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는 율법(계명)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선을 행하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는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교회는 믿음 더하기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는 “다른 교훈”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딤후 6:3).

지금 교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딤후 4:3-4).

참으로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는 그 다른 복음과 섞인 복음과 허탄한 이야기를 잘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고후 11:4).

그 결과 지금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빌 1:27).

즉, 지금 교회는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27 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는데 지금 교회는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습니다(신 12:8, 삿 17:6, 21:25). 이것이 콩가루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3.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막 8:34, 마 16:24, 눅 9:23).

성도님들은 둘째치고 지금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딤후 3:2-5).

지금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딤후 2:12).

지금 우리의 경건은 헛 것입니다(약 1:26).

지금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딤후 2:16).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3:12)

지금 우리는 박해보다 박수 받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복신앙에 젖어들어 ‘예수님을 믿고 복받으세요’라는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도구로 퇴위시켰으며,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목적을 개인의 영달과 사업의 번영 등의 현세적인 것에 두게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보다 “잘 지은 궁전”(렘 22:23,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교회당의 “안락의자에서”(암 6:4) “안락하게 사는” 것(렘 22:23)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히 5:8).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겠습니까(고후 2:15).

교회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깨지며,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강단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모르는 우리 목사들이 다른 복음이나 섞인 복음이나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입술로 뿐만 아니라

강단을 내려와서도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교회 강단은 무너져야 합니다.

## 지금 궁핍함이 너무 심하면 ...

지금 궁핍함이 너무 심하면 전에 풍부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 41:31).

## 지금 나는 갇혀 있어도

지금 나는 갇혀 있는데, 내 눈으로는 동서남북을 보아도  
문제의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일을 행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약속)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렘 33:1-3).

## 지금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이 세상의 돈 많음과 심히 강한 권력 등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사 악행을 행하는 우리나라  
우리의 악행을 돕는 이 세상 사람들을 치시사  
우리를 돕는 자도 넘어지게 하시며  
도움을 받는 우리도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 31:1-3).

##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사 30:12).

지금 우리는 성령의 검이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렘 23:29; 엡 6:17).

그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찢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종들에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사 40:10, “부드러운 말”(pleasant things)]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부드러운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바른 길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허망(deceit)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음식을 편식하여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듯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여

듣고 싶은 설교 말씀만 골라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또한 병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참고: 왕상 22 장).

## 지금 우리의 귀는 ...

지금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갈 1:6, 7, 8, 9).

그 다른 복음은 '섞인 복음'입니다.

그 섞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입니다(Jesus Christ + Alpha).

그리고 그 알파는 바로 "재물"입니다(마 6:24; 눅 16:13).

지금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간지러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욕(욕심)을 따라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많이 뒀습니다(딤후 4:3).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물질의 축복 설교를 하시므로

목사 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귀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없도다"가 아닙니다

(새찬송가 446 장, "주 음성 외에는").

지금 우리의 귀는 사탄의 소리에 너무나 노출되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는 간교한 뱀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창 3:1)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의문의 질문을 자꾸만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핍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의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복음 듣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 기대고 싶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실제로는 갈대 지팡이처럼 쉽게 부러져서  
오히려 우리가 다치고 흔들리며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겔 29:6-7).

##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밀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 1:6-7)

## 지금까지 저를 사하신 것 같이 ...

'주님,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저의 죄악을 사하시되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참고: 민 14:19).



## 지나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구나

아 ...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참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의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을

자랑해서는 아니되겠구나.

자랑하는 것을 그만둬야겠다

(고후 12:6).

##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문제?

예수님을 "지나치게" 믿어

교회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는 것도 문제?

(참고: 갈 1:14)

## 지도자는 ...

지도자는

깊이 생각하며

책임해야 할 때 책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녹을 먹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힘을 다하여 합니다

(느 5:7-9, 14-15).

## 지혜 .. 능력 ..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게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이유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제 마음에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줄을 알 것이며,  
주님의 일을 할 줄 알면  
그 일을 마음으로 원해서 할 것입니다  
(출 36:1, 2).

##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자는 ...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자는  
성령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므로  
세월을 아깁니다(엡 5:15-18).

## 지혜 있는 자는 ...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합니다.  
그/녀는 때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아깁니다  
(엡 5:15-16).

##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미련은 현재보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전 7:10).

## 지혜가 있는 자는 ...

지혜가 있는 자(신 1:13, 15)는 듣습니다(16 절).  
듣되 그는 양쪽 말을 다 듣습니다(16 절).  
듣되 그는 귀천을 차별없이 듣습니다(17 절).  
그리고 그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17 절).  
그는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17 절).  
지혜가 있는 자는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합니다(16 절).

##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심)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엡 5:15-16).

## 지혜로운 부자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돕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입니다(딤후 6:17-19).

## 지혜로운 사람은 ...

하나님께 헌신합니다(왕상 3:4),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큰 은혜를 압니다(6 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7-8 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립니다(9-10 절).

## 지혜로운 여인은 ...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를 압니다(삼상 25:19).

## 지혜로운 여인은 ...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엡 6:33) 또한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게도 존경을 받게 합니다(잠 31:23).

## 지혜로운 여인은 ...

지혜로운 여인은 위기 때 신속히 행합니다(삼상 25:34, 42).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24, 28 절).

남편으로 하여금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31, 33 절).

남편을 세웁니다 (28-30 절).

## 지혜로운 자는 ...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전성기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에 충실합니다(참고: 전 7:10).

##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잠 28:26).

## 지혜로운 자들은 ...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를 좋아하며 지식을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삽니다.

(잠 1:22, 23, 25, 29, 30, 33).

##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음?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의

제일 어리석음은

그는 신명기 17 장 16-17 절 말씀을 어기고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다

(왕상 10:26-11:3).

##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킬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 119:98-100).

##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사명)

나는 그 일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기는 한가?

(참고: 삼상 18:5, 14, 15, 30)

##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대까지 합니다(출 1:10-14).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불순종합니다(17, 21 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십니다(20, 22 절).

##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왕상 3:9-12).

## 지혜를 배우는 자의 시작은 ...

지혜를 배우는 자의 시작(기초)은  
자기 자신이 너무 무식(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 30:2-4; 시 73:22).

##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목사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목사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 떼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나누어 줍니다(눅 12:42, 46).

## 지혜자의 마음은 ...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의 끝인 죽음을 마음에 둡니다.  
유익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줄 압니다(전 7:1-4).

## 지혜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미혹은?

지혜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미혹은  
바로 "탐욕"과 "뇌물"(돈?)입니다(전 7:7).



##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하나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욘 3: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이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유다에 대한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왕하 23:26, 현대인의 성경).

비록 유다 왕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왕하 23:25, 26).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모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셨습니다.

## 진리 안에서 그리고 위하여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요삼 1).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3, 4 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십시오(8 절).

##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 22:19-21).

##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에게서

부목사님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들으시면

그 부목사님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잠 29:12).

## 진실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아합

아람의 왕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도 물어보지 않는 아합(왕상 22:5),

그래도 사돈이 되는(왕하 8:18; 대하 18::1)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왕상 22:5)

물어본답시고 “사백 명쯤” 선지자들을 모았지만(6 절)

그들은 하나 같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꾀임을 당하여(22 절)

‘아람과 전쟁하세요 승리할 것입니다’(6, 11-12 절)라고

“좋은 일만 예언”(13 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자기에게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의 권면(7 절)을 듣고

아합은 한 내시를 불러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고 명합니다(9 절).

그러면서 그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모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습니다(10-12 절).

한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간 내시는 미가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13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 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14 절).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15 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의 풍자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아합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랬기에 아합은 미가야에게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만 예언해 주는 400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를 좋아하면서

자기에게 나쁜 일만 예언해 주는 1 명의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참 선지자를 “미워하”는(8 절) 아합,  
 그러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에게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몇번이나 말하는 아합이 웃기지 않습니까?  
 디도데후서 4 장 3-4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엡 6:17),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찢”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행 2:37, 6:54),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2:38) 그 말씀은 선포한 주님의 종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면서(7:54, 현대인의 성경)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57 절) 돌로 치고 있으니(58 절) ... 썩썩.  
 그러면서도 아합처럼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왕상 22:16)라고 말하고 있으니 ... 썩썩.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렘 42:6)라고 말하였는데 ..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따돌림)을 받으며  
 욕을 먹고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눅 6:22, 26).

## 진실함

주님은 나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시 51:6).

### 진정 "광야"는 "나쁜 곳"인가요?

"광야"는 "욕심을 낸 백성"에게는(민 11:34) "나쁜 곳"입니다(20:5).

그 이유는 광야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5 절).

그러나 광야는 예수님 한분만으로 자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좋은 곳입니다(빌 4:11; 딤후 6:6).

그 이유는 광야에서는 육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신 것을 겸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엡 1:3, 현대인의 성경).

### 진정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면은

복음 전도 대상자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까지 구분하여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요 4:4, 9).

### 진정한 교제란 ...

진정한 교제란 수직적인 성상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요일 1:3-4).

## 진정한 권위

“늘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는 자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때,  
또한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탐심을 부정하며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선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있게 됩니다. …

근본적으로 바울의 진정한 권위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김세윤).

저와 같은 목사의 진정한 권위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기 이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는 은혜 의식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기를 거부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목사의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일에 참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도록 목사로서의 권위(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9 장 12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나의 권리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하기 위해서입니다(고전 9:12).”

참되 저는 디모데후서 2 장 24 절 말씀처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는

성경 말씀대로 저는 목사(복음전파자)로서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온유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참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 진정한 사귄(교제)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요일 1:3)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4 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5:11-13; 롬 6:23)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므로(마 22:37, 39)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요 15:9-12; 요일 1:4).

## 진정한 자유인은 ...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세우고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고전 8:1, 9; 9:12, 19, 25).

## 진정한 자유인은 ...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boundary)안에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켜 가둡니다(요 8:32, 고전 9:27).

## 진정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잠 27:17)  
사랑으로 간절하게 나에게 권면하는 친구입니다(9 절).  
그 간절한 권면에는 나를 향한 아픈 책망도 포함됩니다(27:6).

## 진주와 같은 것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탐욕

탐욕은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주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오히려 진주 껍데기와 같은  
순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갈급하게 만듭니다(참고: 민 11:4-7).

## 진짜 허사인 줄 알았는데 ...

상대방에게 매우 선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나의 선을 갚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한 것이 진짜 허사라고 생각될 것입니다(삼상 25:21).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나를 선대해주시사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귀한 은혜를 배불어 주십니다.

(다윗의 경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되었습니다).



## 징계의 목적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예배자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습 3:9-10).

(Iain M. Duguid의 "Zephaniah" REFORMED EXPOSITORY COMMENTARY"를 읽으면서)

## 짧은 묵상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나빠진 것(worst)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better)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참고: 단 1:15, 20; 2:46-49).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 가운데서 높이시되(2 장, 특히 48-49 절)  
더욱 높이십니다(3 장, 특히 30 절).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우리 가정과 교회는 견고할 것입니다(참고: 4:26).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참고: 4:30, 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다가  
점진적으로 우리 공로로 여기게 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교만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들을 다 빼앗으십니다(참고: 5:18-20).

교만한 죄의 결과를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우리의 호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5:22-23, 26).

##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행 11:24).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인정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22 절).

교회에서 인정 받는 사람은 언행일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요 4:23-24).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23 절).

그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23 절)

그는 육체적인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권하는 자(encourager)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23 절).

착한 사람은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바나바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울(바울)을 세우고 뒤로 물러났습니다(25-26 절).

저도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12 말씀 집회 첫째날 강사 송상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

## 참 제자들

청함을 받은 천국 잔치에(마 22:2)

사망하지 않고(눅 14:18) 응하는 참 제자들은(26, 27, 33 절)

천국 잔치에 왕이신(마 22:2) 주님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눅 14:26).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27 절).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33 절).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제자도의 값(cost of discipleship)을 치루기를 헌신합니다 (28-32 절).

## 참고 견디는 인내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영혼의 번민과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시 13:1-2)

나는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4 절).

그 때 내 마음에 몰려오는 두려움은

내가 죽는 것(3 절)과

내 원수(마귀?)가 나를 이겼다고 말하며

기뻐할까봐 두렵습니다(4 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3 절).

## 참된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해야 함(잠 30:8)과 동시에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멀리함 동시에  
참된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말과(갈 4:16)

참된 것과(엡 4:15, 25)

참된 증인과(계 3:14)

참된 은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벧전 5:12).

한 마디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 14:6).

## 참된 신앙인은 ...

참된 신앙인은

자기가 접한 재앙들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가 접한 재앙들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웁니다

(시편 57 편).

## 참된 자유인

주님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에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해야 합니다(출 21:5-6).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주님의 종은 참된 자유인입니다.

## 참된 자유인?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야말로 참된 자유인입니다  
(참고: 출 21:5; 요 8:32; 사도 바울의 편지들).

## 창세기 13 장 짧은 묵상

나눔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기에 풍성하게 할 것 같아 선택한 그 길이 어쩌면 궁핍케 하는 지름길일 수도 ... (참고: 창 13:10)

내가 보기에 풍족하게 보이는 그 곳에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큰 죄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10, 13 절).

물질이 풍부하데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넉넉하면 화평케 합니다(1-8 절).

어떻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볼 수 있단 말인가(10, 13 절).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을 "애굽 땅"과 같다는 표현과 동등시 할 수 있단 말인가(10 절). 과연 롯이란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기에 ...?

어떻게 주님이 멸하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최악된 세상을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볼 수 있단 말인가. 과연 당신은 어떠한 교인이기에 ...?

육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는 물질의 넉넉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동산에는 장차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0, 14-17 절).

##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

(출 4:31)

## 천국 시민권자의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빌 3:20).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1:27).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천국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천국의 법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 계명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화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화 이뤄나아갈 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을 주님의 증인 공동체로 사용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합니다.

##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마 18:4),

또한 섬기는 사람입니다(20:26).

## 첫 17 년과 마지막 17 년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첫 17 년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살았고(창 37:2),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던 요셉(3 절)과

자기의 인생 마지막 17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47:28).

## 청함을 받았지만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마 22:2, 4)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눅 14:18).

그 이유는 그들은 천국 잔치에 왕이신(마 22:2)

주님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눅 14:26).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27 절).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33 절).

한 마디로,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6, 27, 33 절).

그 이유는 그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마 22:14).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왕상 10:8).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혜가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약 1:5).



## 충돌질 하는 이세벨

남편의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안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왕상 21:4,5)  
고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때문임을 알고(6 절)  
왕후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7 절).

그리고는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8 절).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은 나봇을 모함하여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여  
나봇을 돌려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9-10 절).  
참으로 “술수”가 많은(왕하 9:22) 간악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 곧 그(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왕상 21:11)  
결국 나봇은 성읍 밖으로 끌려 나가 돌로 쳐죽임을 당합니다(13 절).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납니다.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케 한 사실을(삼하 11:2-5) 두 번이나 덮으려고 시도했다가(8-13 절)  
안되니까 결국에는 편지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냈습니다(14 절).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였습니다(15 절).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17 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고후 3:3),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2:15),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엡 5:2),

아합처럼 이웃의 소유를 탐하던지(눅 11:39, 마 23:25, 민 11:4, 고전 5:11, 출 20:17, 엡 5:3),  
이세벨처럼 남편의 (혹은 자신의?) 탐심을 충족시켜주고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딤후 3:11,  
딤후 3:3)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악한 죄(약 5:6, 사 29:21 현대인의 성경)까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이세벨은 자기의 남편에게 약속한 것처럼(왕상 21:7)

아합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15 절).

그녀는 나봇을 죽여서라도(14, 15, 16 절)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준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아합을 배후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바로 아합을 충동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한 자입니다(25 절).

그녀가 바로 아합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26 절).

그러한 이세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였습니다: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23 절).

사탄은 충동합니다(대상 21:1).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충동합니다(욥 2:3).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람들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모인 교인들을 “충동”질합니다(행 21:27, 14:19, 대상 21:1).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소동”을 일으키며(행 21:30),

“소문”(악성루머)을 퍼트리며(31 절) 결국에는 “폭행”(35 절)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 충분히 원망스러운 상황인데 ...

안 그래도 충분히 원망스러운 상황인데(수 9:18),  
그 상황이 더 악화되고(10 장),  
더욱더 악화되어  
충분히 크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11 장),  
하나님께서서는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10:8, 11:6)  
그 상황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롬 8:28)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적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며 왜곡하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잠 26:9).  
그런데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 왜곡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민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영적 민간함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련한 자의 잠언과 지혜로운 자의 잠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13:2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와 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와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9:9).

## 치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선  
불신자들의 신들을 치워 버려야 합니다  
(수 24:14).

## 침묵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마땅히 형벌 받을 자는 나인데(사 53:8)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6 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잠잠한 양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7 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침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 침묵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침묵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왕하 7:9).

## 침상에서 우리는 ...

침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시 63:6).

우리는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6:6).

우리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149:5).

결코 우리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36:4).

## 칭찬 받을 만한 성도

오래도록 공동체(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는 칭찬 받을만 합니다

(수 22:3).

[여기서 "그 책임"이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말함.]